

# 구술서평의 성격과 학습사례 연구\*

## A Study on the Nature of Oral Book Reviewing and the Case of Learning

김 상 호(Sang-Ho Kim)\*\*

### 〈 목 차 〉

I. 서 언	3. 방송언어의 특성
II. 구술서평의 형식	4. 비언어적 표현
1. 구술서평의 두 가지 방식	IV. 구술서평 학습사례
2. 기사서평과의 차이	1. 학습의 필요성과 방법
III. 구술서평의 조건	2. 구술발표의 경향
1. 원고, 요지의 준비	V. 결 언
2. 언어적 표현, 전달	

### 초 록

본 연구는 구술서평 전문가의 양성을 위한 방법론적 기초를 마련하기 위해 구술서평의 형식과 조건, 학습상의 문제점을 고찰한 것이다. 체계적인 학습을 위해서는 경험이 있는 강사와 관련 기자체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며, 학생들이 다양한 발표 경험과 자체 평가를 통해 자신감을 갖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원론적으로 구술서평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서평을 통해 전달할 내용을 체크하고, 발표 시 참고하기 위한 원고 또는 요지를 준비하며, 자연스럽게 정확한 의사전달이 되도록 반복 연습을 해야 한다. 특히 방송매체를 통한 구술서평에서는 방송언어의 일반적 요건을 유의한다. 문제가 되는 언어 표현을 삼가며, 표정, 시선, 자세, 몸짓, 의상 등 비언어적 표현 또한 시간과 장소, 책의 성격에 맞게 고려한다.

주제어: 구술서평, 서평, 서평자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nature and the pattern of oral book reviewing in order to prepare the methodological basis of systematic education and training for the oral book reviewer. Students should have opportunities to exercise themselves in oral book reviewing. We need experienced teachers, space, facilities, and supplies to train them to be a member of reviewer group at modern intellectual society. And there are so many prerequisites like good copy, delivery technique, understanding the specialty of broadcasting language and the distinctions of the oral review from the written review for successful performance as reviewer.

Key Words: Oral Book Reviewing, Book Review, Book Reviewer

\* 이 논문은 2004학년도 대구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한 연구임.

\*\* 대구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sanghkim@daegu.ac.kr)

• 접수일: 2005년 5월 15일 • 최종심사일: 2005년 5월 30일 • 최종심사일: 2005년 5월 30일

## I. 서 언

서평은 저자가 책을 통해 말하고자 한 것이 무엇이고, 그것이 과연 어떠한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그 의도한 바를 얼마나 잘 표현해내었는지 판단하여 독자에게 알려주는 것이다. 구술서평은 언어를 수단으로 한 서평 행위를 일컫는 말이다.

서평이 순수비평, 최신정보주지, 양서선택의 구실을 한다면 오늘날의 서평은 과거에 비해 양서선택의 비중이 높아진 것으로 보여 진다. 국내외에서 쉴 새 없이 쏟아져 나오는 책들로 서점의 매장, 도서관의 서고 공간은 이미 한계를 드러냈다. 이는 일반 독자가 자신이 원하는 최적의 책을 찾기 위해서는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을 지불하게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물론 인터넷을 통해 보다 수월하게 접근할 수 있게 되었지만, 그것은 양서선택보다는 아직까지 최신정보주지에서 강점을 지니고 있다. 선전문구 수준의 웹 서평은 신뢰도에서 문제가 있다.

금세기 들어 각종 매체에서 서평지면이 증대되고, 주제별 서평전문가가 새롭게 등장해 활동하고 있는데, 이는 양서선택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사회적 요구에 기인하는 바로 해석된다. 일반 독자가 전문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한 독서 및 출판 관련 지면이나 프로그램에서 서평전문가가 차지하는 비중은 더욱 커질 것이다.

전통적으로 책을 비평하는 일은 인쇄매체를 통해 이루어졌다. 하지만 오늘날은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다. 대중화된 방송을 통해 문자가 아닌 언어로 서평활동이 전개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구술서평의 예는 흔하지 않으나, KBS의 <TV 책을 말하다>, EBS의 <책, 내게로 오다> 등의 독서관련 프로그램에서 구술서평활동이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비록 대상 문헌의 선정, 서평자의 자질, 서평의 형식에서 완성도가 낮지만, 독서활성화 측면에서 그 성과는 결코 적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었다.<sup>1)</sup>

전문가가 서비스의 질을 보장할 수 있다. 올바른 서평문화를 위해서는 경험을 통해 자생적 전문가가 출현하기를 기다리기보다 교육과 훈련을 통해 서평전문가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양성해야 한다. 서평교육에 참고할만한 몇 가지 연구 성과가 있으나, 교육 및 훈련시스템은 주변에서 찾아볼 수 없다.

본 연구는 구술서평 전문가의 체계적인 교육과 훈련을 위한 방법론적 기초를 마련하기 위해 구술서평의 성격과 제반 조건을 점검하는 데 목적이 있다. 방송실무의 일반적 원칙과 방법은 학습사례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전공을 제한할 필요는 없지만 문헌정보학의 영역에서 서평전문가를 배출하고, 서평사서가 신문의 서평전문기자, 방송의 독서프로그램 제작자, 또는 진행자로 활동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접근하고자 한다.

1) 정현옥, 강혜영, “남녀 대학生の 독서매체활용에 관한 계량적 연구,” 서지학연구, 29집(2004, 12), pp.169-171.

## II. 구술서평의 형식

### 1. 구술서평의 두 가지 방식

구술서평은 도서관, 학교, 문화센터의 공간에서 한정된 인원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며, TV나 라디오의 전파매체를 통해 불특정 다수의 시청자 및 청취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지기도 한다. 한정된 인원이란 일정한 공간에 모인 독서회의 회원이나 문화강좌의 수강생, 학생, 주부 등이다. 그들을 대상으로 하는 구술서평은 논의의 필요가 있거나 화제가 될 만한 책을 선정해 강연의 방식으로 심도 있게 다루기 마련이다. 이러한 활동은 책과 독서에 대한 관심을 촉진하고, 관련된 주제에 대한 지식과 견해를 확대하고 분명히 하는 데 도움이 된다.

도서관은 도서관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도구로 라디오나 TV의 독서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지역의 공공도서관 사서가 지역 신문이나 지역 방송을 통해 제공하는 서평은 지역 주민에게 유용한 정보서비스이다. 그 성패는 서평사서의 능력에 달려 있다.<sup>2)</sup>

불특정 다수의 시청자나 청취자를 대상으로 제공되는 전파매체의 독서프로그램에는 책의 저자나 관련분야의 전문가, 비평가들이 출연하여 화제의 신간을 소개하고, 사회적 이슈가 되는 책을 빌어 사회현상을 분석하고, 문제점을 진단하며, 대안을 제시한다. 전문가의 해석과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뿐 아니라, 책과 독서에 흥미를 갖게 하는 강점이 있다.

비록 독서의 활성화와 시민의 교양 증진에 효과가 크지만, 문제는 공정하고 분별력 있는 평가보다는 베스트셀러로 감염하게 할 우려가 없지 않다는 점이다.<sup>3)</sup> 방송의 순기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일정 부분 문헌정보학계의 관심과 참여, 연구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2. 기사서평과의 차이

문자로 전달하는 서평기사와 언어로 전달하는 구술서평은 책을 비평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같다. 그 궁극적인 목적은 책에 관한 독자의 관심과 이해를 돕고, 저작자와 출판사의 창의적인 작업을 평가하는 것이다. 다만 구술서평과 기사서평은 비평의 방법론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는데, 이는 언어와 문자의 차이, 그리고 서평매체의 특성에 따른 것이다.

기사서평과 비교되는 구술서평의 가장 큰 특성은 서평을 읽는 공간과 시간의 한계성이다. 신문과 잡지의 다양하고 넓은 지면을 통해 게재되는 기사서평이 시간적 여유를 갖는 반면, 소수의 라디오나 TV의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 전파되는 구술서평은 공간적, 시간적 여유가 크지 않다. TV의 서

2) Helen E. Haines, *Living with Books*, 2nd ed.(New York : Columbia University Press, 1950), p.126.

3) *Ibid.*, p.107.

평프로그램이 신문이나 잡지의 서평기사보다 시각적으로 다양하게 제작된다는 측면에서 공간적 여유가 있다고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양적으로 서평프로그램의 수가 적다는 측면에서 공간적 한계가 있다고 보는 것이다.

TV방송은 매체의 특성 상 시청률에 매우 민감하게 작용한다. 따라서 교육적, 전문적, 학문적인 프로그램보다는 시사적, 대중적, 교양적인 것을 우선시 하고, 서평프로그램에서 선정되는 책도 역시 그러하다. 독자의 다양한 요구를 만족시킬 수 없는 한계를 안고 있는 것이다. 독자의 선택권은 방송 매체가 아닌 도서관이나 학교에서 다양한 종류의 독서관련 프로그램을 통해 보장될 수 있다.

기사서평의 분량이 공간으로 확인되는 것이라면 구술서평은 시간으로 측정되는 것이다. 인쇄매체에서는 집필자에게 요구하는 분량이 있으나 약간의 오차는 허용이 된다. 비록 편집의 방법이 있긴 하나 방송은 그렇지 못하다. 따라서 말의 속도를 고려해 전체 서평의 길이를 정확히 계산해내야 한다.

구술서평이 지닌 시간적 한계성은 일방성으로도 표현할 수 있다. 기사서평을 읽는 독자는 중간 중간에 사색의 시간을 가질 수 있다. 하지만 구술서평을 듣는 청중은 그렇지 못하다. 구술서평이 진행되는 동안 잠시도 다른 일을 할 수가 없다. 일방적으로 프로그램이 진행되기 때문이다. 유능한 구술서평자는 그들이 생각하고 감동할 시간적 여유를 제공할 줄을 안다.

구술서평에서 비평의 내용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표현, 전달 방법이다. 좋은 원고를 준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것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언어능력 또한 결코 무시할 수 없다. 그런 점에서 유능한 서평자가 반드시 유능한 구술서평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구술서평의 강점은 대중의 관심과 흥미를 책으로 이끌어내는 데 있어서 기사서평보다 훨씬 유리하다는 점이다. 본질적으로 인간에게 있어서 문자를 읽고 해석하는 것은 그림을 보거나 귀로 듣고 이해하는 것보다 훨씬 힘든 일이다. 구술서평에서는 독자의 선택권이 보장되지 않는다. 그런 이유로 구술서평은 더욱 흥미로워야 한다. 기사서평보다 상대적으로 깊은 사색을 필요로 하지 않는 주제, 그런 수준의 책들을 대상으로 삼는 절반의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 구술서평자의 말에 열중하다 보면 어느덧 시간이 끝나고, 혹 남겨지는 교훈이나 감동의 여운이 있다면 그 서평은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정해진 시간과 공간 안에서 서평할 수 있는 책은 한정되기 마련이다. 선정된 책은 충분히 흥미롭고 주목할 만한 것이어야 한다. 독자의 흥미를 끄는 책은 무언가 새롭게 생각하고, 토의할만한 거리, 무언가 시사하는 바가 담겨져 있는 책이다.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메시지, 철학, 아이디어가 담겨 있는 책이 구술비평하기에 좋다. 요약하고 토의할만한 가치와 소재가 있기 때문이다. 굳이 많은 비용을 들여 수준이 낮은 책을 비평하고, 청중의 시간을 낭비할 여유가 없다. 필요하다면 그러한 기능은 몇몇 권위 있는 저널의 서평지면에서 행해질 수도 있다.

### Ⅲ. 구술서평의 조건

#### 1. 원고, 요지의 준비

경험이 많은 서평자는 자신의 의견을 논리적으로 분명하게 전달할 수 있다. 하지만 뛰어난 달변가라 하더라도 특정한 내용을 정해진 시간에 맞추어 정확히 표현해낸다는 것은 쉽지 않다. 따라서 구술서평자는 우선 서평원고를 신중하게 작성하고, 이를 숙지해야 한다. 구술서평 원고는 전달할 내용을 체크하고 기억하며, 발표 시 참고하는데 도움이 된다.

라디오 서평프로그램에서는 서평 원고의 낭독이 가능하다. 그러나 TV나 도서관과 같이 공개된 공간에서 서평자가 전적으로 원고에 의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준비가 소홀하다는 인상을 주며, 흥미를 반감시킨다. 원고는 어디까지나 기억을 돕는 장치에 불과하다. 몇 장으로 나누어 작성한 발표요지를 확인하며 발표하는 서평자의 모습이 청중들이 보기에는 낯다. 요지는 읽어나가는 원고가 아니라 말의 모양을 갖추고 실체를 제공하는 뼈대이다.

구술서평을 위한 원고의 작성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sup>4)</sup>

- 1) 주어진 시간을 정확히 지킬 분량을 정한다.
- 2) 논리적인 구조 하에 유연하고 흥미가 유지되도록 작성한다.
- 3) 몇 가지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작성한다. 모든 것, 너무 많은 관점을 말하는 것은 기억하기 어려우며, 혼란에 빠지기 쉽고, 청중의 관심과 흥미를 반감시킬 우려가 있다. 오래 말하는 것 보다는 정지해야할 때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 4) 해석을 통해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그것을 청중의 몫으로 남겨두는 것이 필요하다. 감동은 강요된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것이 되도록 한다.
- 5) 소설을 비평함에 있어서 빠지기 쉬운 함정은 줄거리를 요약하는 것이다. 그것을 길게 이야기하는 것은 무능함의 증거이다. 논의할 거리가 인물묘사에서 많기 마련이다. 그렇다고 다수의 인물들을 거론하다보면 청중이 혼란에 빠지기 쉽다. 소설의 의미와 장단점을 전달하도록 한다.
- 6) 글자의 크기, 줄의 간격을 참고하기 쉽게 편집한다.
- 7) 구술서평에서는 저자의 말과 서평자의 말을 구분할 인용부호가 없다. 따라서 이를 구분하는 말을 분명히 사용한다.
- 8) 방송 원고의 문장은 바르고 간단하고 명쾌하게 써야 한다. 방송 원고를 작성할 때 특별히 유

4) *Ibid.*, pp.134-136.

Evelyn Oppenheimer, *Oral Book Reviewing to Stimulate Reading*(Metuchen : Scarecrow Press, 1980), pp.32-33.

의해야 할 사항은 명확하고 바른 언어, 좀 더 설명적이고 강한 단어, 의미가 함축된 단어, 축약적인 표현, 단순한 문장을 사용하되, 애매모호한 표현, 상투적인 말, 부정적인 문장구조, 부연설명을 피하고, 강조하고 싶은 표현의 경우 강세를 주는 것으로 요약된다.<sup>5)</sup>

- 9) 구술서평에서 쓰이는 구두어는 문장 구조 상 기사서평에서 쓰이는 문자어와 차이가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구두어는 상대적으로 문장이 짧고, 문장의 순서가 정상이 아니거나, 문장 성분의 일부를 생략하며, 특히 말을 맺지 않고 문장을 끝내는 일이 있다. 그리고 같은 문장이나 말을 반복하는 일이 있고, 한자어의 사용이 적으며, 경어가 언제나 따르고, '이것', '그것'과 같은 지시어를 사용하는 경우와 문장의 끝을 '이다'가 아니라 '이에요', '습니다'로 맺는 경우가 많다.<sup>6)</sup>

## 2. 언어적 표현, 전달

서평자는 원고 또는 요지의 작성이 완료되면 목독, 음독, 낭독의 순서로 구술 연습을 하고,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거기에 표시해둘 필요가 있다. 가족은 지나치게 비판적일 수 있으므로 연습은 가족보다는 거울 앞에서 혼자 하는 것이 좋다는 견해도 유념할 만하다.<sup>7)</sup>

언어적 표현은 발음의 고저장단, 말의 가락, 악센트, 속도, 시간적 공백, 낭독상태의 변화, 명암 등의 기교를 말한다. 서평자는 그의 사고와 느낌이 그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언어적 표현에서 개성이 있어야 하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해야 한다.

- 1) 서평자의 발음은 분명하고, 목소리는 활기차야 한다. 적극적이고, 자신감이 있어야 가능하다.
- 2) 말은 자연스러워야 한다. 사적으로 친근한 사람과 이야기하듯 부드러워야 한다.
- 3) 천천히 차분히 말한다. 이는 각 단어가 들리는 속도로 말하는 것을 의미한다. 방송 언어의 속도는 평균적으로 라디오 취재기자들이 직접 출연하여 방송하는 설명형 뉴스(report news)에서 1분간 364음절, 1문장 평균음절은 114음절이고, 아나운서들이 담당하는 라디오 낭독형 뉴스(straight news)에서는 1분간 345음절, 1문장 평균음절은 88음절이며, DJ와 MC의 대화체 방송에서는 1분간 308음절, 다큐멘터리와 같은 낭독체 방송, 나레이션에서는 1분간 286음절, 1문장 평균음절 56음절이고, 상대적으로 여자가 남자보다 많은 음절을 말하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sup>8)</sup>
- 4) 전달기법 상 비평 중간에 포즈, 시간적 공백의 적절한 타이밍을 찾는 것도 중요하다. 코미디언이 관객에게 웃을 시간을 주는 것처럼 비평자는 청중에게 감동하거나 생각할 시간을 주어

5) 이선미 스피치랩, <<http://www.speechlab.co.kr>> 방송문장 [인용 2004. 7. 14.]

6) 박갑수, 한국방송언어론(서울 : 집문당, 1996), p.90.

7) Evelyn Oppenheimer, *ibid.*, pp.41-42.

8) 김상준, 방송언어연구(서울 : 커뮤니케이션북스, 2000), pp.267-312.

야 한다.

- 5) 서명이나 저자명, 책에서 나오는 이름, 장소 등을 말할 때에는 보다 정확하게 발음하고, 적을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도 필요하다. 사람들은 서명은 쉽게 잊지만 저자명은 잘 잊지 않는 경향이 있다.<sup>9)</sup>

### 3. 방송언어의 특성

방송매체에서의 구술비평은 방송언어의 조건과 특성을 감안해야 한다. 그 가운데 특히 구술서평에서 유의할 필요가 있는 항목은 다음과 같다.<sup>10)</sup>

- 1) 표준어라야 한다. 보편성과 교육성, 친화성을 지녀야하기 때문이다.
- 2) 구두어이어야 한다. 바르고 쉽게 이해되기 위해서는 시각에 호소하는 문자언어와 구별하여 청각에 호소하는 음성언어로 전달해야 한다.
- 3) 쉬운 말이어야 한다.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방송에서는 쉽게 풀어 말할 필요가 있다. 생각을 요하는 말이어서는 안 된다. 전문분야에 대해 언급하다 보면 전문적이고 난해한 용어를 쓰게 된다. 동음어, 유음어, 약어, 외국어를 피하고 문장은 그 길이와 구조에서 간결하고 단순해야 한다. 50자 이내가 적절하다. 수의 표현에 조심하고, 복잡한 수치는 개략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 4) 순화된 말이어야 한다. 품위가 있고 우아한 말, 시청자 중심의 경어를 사용한다. 비속어나 저속한 표현은 사회자나 출연자가 시청자의 관심이나 흥미를 끌기 위해 의도적으로 사용하기도 한다. 사담으로나 할 수 있는 말은 방송에 적합하지 않으며, 비어, 은어, 방언은 적절하지 않다. 방언은 주로 표준어 교육을 제대로 받지 않은 출연자에 의해 쓰여 진다. 교육 및 교양방송의 경우 방송주제와 관련된 인물을 섭외해야 하는데, 그들은 방송 언어에 익숙하지 않을 때가 많다.
- 5) 정확한 말이어야 한다. 어법에 맞고, 논리적이며, 효과적인 표현이어야 한다. 사실과 부합되지 않거나, 개인과 사회에 해를 끼치는 표현, 지나친 수식어 및 감탄사의 사용, 습관적인 말이나 동의어의 반복, 실언, 잘못 읽는 것 등에 유의한다.

특히 방송에서 자주 문제가 되는 언어나 표현으로 구술비평을 함에 있어서도 삼갈 필요가 있는 것은 우리말의 정체성을 해치는 언어로 일본식 한자어나 서양 외래어, 외래의 수동태와 같은 구문, 사고방식을 불건전하게 하는 언어로 과장이나 권위주의 언어, 특정집단의 언어, 방송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언어로 은어나 속어, 비어, 억지 조어, 약어, 엉뚱한 용어, 일상적이지 않은 말로 어려

9) Evelyn Oppenheimer, *ibid.*, pp.41-48.

10) 박갑수, 전게서, pp.22, 28-34.

은 한자말, 어색한 명사화, 복잡한 명사구, 지역감정을 자극하거나 계층 간에 위화감을 주는 용어 및 표현 등이다.<sup>11)</sup>

#### 4. 비언어적 표현

구술서평에서 중요한 것은 서평자의 언어적 표현뿐만 아니라 비언어적 표현이다. 비언어적 표현은 언어적 표현을 보완하고 강조하는 기능을 한다. 얼굴 표정과 시선, 자세와 몸짓, 의상 등의 비언어적 표현, 커뮤니케이션에서 유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sup>12)</sup>

- 1) 먼저 청중이 서평자의 말에 집중하도록 분위기를 조성한다. 서평자는 밝은 얼굴로 청중에게 다가가야 한다. 그리고 청중과 교감을 나누며 서로 일체가 되어야 한다. 바로 이야기를 시작하기 보다는 몇 초 동안 시선을 청중에게 두고, 편안하게 자리한다.
- 2) 시간과 장소에 어울린 모습으로 등장한다. 메이크업을 함에 있어서 우선 해당 프로그램의 내용을 분석하고, 외모와 성격에 맞는 헤어스타일, 의상을 정하고, 일일이 소품, 색상 등을 체크한다.
- 3) 단상에서 발표할 때에는 바른 자세를 유지하고, 간간히 원고를 참고할 때 외에는 항상 청중을 고루 바라본다. 발표가 끝나면 바로 물러나지 않고, 잠시 머물러 청중들이 생각을 마무리할 여유를 준다.

### IV. 구술서평 학습사례

#### 1. 학습의 필요성과 방법

구술서평은 비평의 내용, 즉 좋은 원고 못지않게 그것의 전달기술 또한 중요하다. 곁에 드러나는 것은 구술능력이며, 원고의 내용은 차후의 문제이다. 구술에 소음이 있다면 좋은 원고도 무용지물이 되기 십상이다.

따라서 구술서평 학습에서 초점을 맞추어야 할 부분은 비평의 내용이 아니라 전달기술이다. 말하는 능력은 천부적인 것도 있다. 하지만 보통사람이라면 일정 수준까지는 체계적인 훈련, 학습을 통해 그 능력을 끌어올릴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전문적인 스피치훈련은 방송유관기관에서 행해지고

11) 임태섭, "방송언어의 사회적 의미와 영향," 방송위원회 정책연구, 2001-4, pp.50-65.

한국방송공사 방송심의실, 방송금지용어사례집(서울 : 한국방송공사, 1981), p.95.

12) Evelyn Oppenheimer, *ibid.*, pp.44-48.

이선미 스피치랩, TV메이크업, [인용 2004. 10. 11.]



있다.

한편, 대학의 문헌정보학 교육과정에서도 말하기 교육, 학습이 이루어져야 한다.<sup>13)</sup> 도서관 현장에서 이용자 서비스를 하는데 있어 언어능력은 매우 중요하다. 책에 대한 관심과 흥미 유발을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의 독서, 서평 프로그램에서 담당 사서의 언어능력은 더욱 그러하다. 현장에서 경험을 통해 노하우가 생기겠지만, 미리 그 필요성을 인식하고 학부과정에서 연습의 기회를 갖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다. 단순히 귀에 들리고 이해되는 수준에서가 아니라, 언어의 아름다움과 힘, 감동을 느끼게 하는 수준에 다다르기 위해서는 교육과 훈련, 교정과 반복된 연습이 필요하다.

구술서평의 효과적인 학습을 위해서는 경험이 있는 강사, 실습기자재의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지만 지난 3년간 그런 여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시험적 수업을 행하였다. 학생 스스로 평가자가 되어서 토론하는 가운데 최선을 찾아가도록 지도하는 것이 고작이었다. 구술비평 학습 시간을 점진적으로 늘려 2004학년도 문헌비평론 수업에서는 8주 동안 서평기사의 작성을 학습하고, 나머지 8주 동안에는 구술서평을 학습했다.

좀 더 구체적으로 구술서평의 수업은 4단계로 구분하여 1단계에서 간단한 이론 강의, 2단계에서 기존의 방송프로그램 및 동문의 발표사례에 대한 평가 및 토론, 3단계에서 가상 독서강연 공간에서 청중을 대상으로 한 개인별 구술서평 발표, 녹화, 평가, 4단계에서 가상 TV 공간에서 조별 독서프로그램의 기획, 제작, 녹화자료의 시연, 평가의 순서로 진행하였다.

정해진 수업시간에는 개인별, 조별 발표와 평가를 진행하기에도 벅차기 때문에 연습, 녹화는 과외시간에 별도로 이루어졌다. 학생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 창의적인 작업을 통해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보다 효과적인 학습을 위해 다음부터는 방송녹화현장을 견학하고, 독서클럽활동을 더욱 장려하고자 한다.

여전히 많은 과제가 남아 있는데, 첫째는 문헌정보학의 영역에서 구술서평을 담당할 강사를 확보하는 것이다. 방송관련 전문가, 독서클럽 담당사서의 특강으로 보완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다. 둘째는 녹음 및 녹화, 편집을 위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는 것이다. 녹음기, 고성능 마이크, 캠코더, 편집기, 모니터, 대형TV, 녹음실, 스튜디오가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확보된다고 하더라도 운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우선은 대학의 교육방송국, 교수학습개발센터, 언론매체학과 등에서 시설 및 기자재의 사용 편의와 그 활용법에 관한 교육을 제공받는 것도 열악한 환경에서 시도해볼만한 일이다.

## 2. 구술발표의 경향

구술서평 수업의 3단계와 4단계에서 드러난 학생들의 구술발표 상의 문제점, 그 경향을 유형별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3) Helen E. Haines, *ibid.*, p.135.

- 1) 자세 및 시선이 고정된다. 긴장한 나머지 손발의 움직임이나 표정이 자연스럽지 못하고, 어색한 나머지 어긋난 자세로 서있거나, 시선을 한쪽에 고정하는 경향이 있다.  
지나치게 긴장하거나 말과 표정이 맞지 않는 것은 발표 경험이 부족한 때문이다. 친구와 대화하듯 편한 마음으로 시작하면 표정도 부드러워진다. 청중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시선을 보내고 관심을 보여야 청중도 그의 이야기에 흥미를 갖게 된다. 특별히 비언어적 표현에 대한 연습과 연출이 필요하다.
- 2) 말의 강약이나 빠르기에 변화가 없다. 발표할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암기해서 말하려 하며, 그런 이유로 글을 읽는 것 같은 느낌을 준다. 빨리 마무리하려는 생각에 말의 속도가 점점 빨라지기도 한다. 발표 중간에 암기한 내용을 잊었을 경우, 당황한 나머지 발표를 포기하기도 한다. 언제 어디서나 실수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차분하게 위기에 대처하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 역동적인 발표를 위해서는 가급적 자신이 있거나 평소 관심을 가진 주제 분야의 책을 선정하고, 문헌의 배경정보를 충분히 수집하며, 반복된 연습을 통해 확신을 가져야 한다.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해야 자연스럽게 힘이 실리게 된다
- 3) 정확하게 발음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정확한 읽기 연습이나 발표의 경험이 적고, 자의적으로 쉽고 간편하게 발음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독서클럽 등 공개적인 모임에서 발표의 기회를 자주 갖고, 입 모양을 크게 해서 표준어로 말하고, 특별히 고유명사는 천천히 정확하게 발음하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
- 4) 원고나 암기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 원고에 지나치게 의존하면 불성실해 보이고, 청중의 흥미도 반감되기 마련이다. 암기에 의존하면 표정이 경직되고, 돌발 상황에서 대처할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 원고나 암기한 내용은 논리정연하고 군더더기가 없으며, 문어체인 경우가 많다. 그럴 경우 발표는 더욱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 여유가 있고 자연스러워야 한다. 원고의 주요 항목을 체크하거나, 몇 장의 요지를 참고하며 진행하는 것이 발표에 용이하고, 청중에게도 신뢰감을 줄 수 있다. 처음 도입부가 무난하면, 발표를 성공적으로 마칠 가능성이 크다. 도입부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입할 필요가 있다.
- 5) 개성 있는 말솜씨, 용모, 서평의 방식을 개발하거나 연출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자신의 강점을 발굴해서 발전시키고, 색깔 있는 서평자가 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선정한 책의 주제, 유형, 내용에 맞는 용모와 서평방식을 강구해보아야 한다.  
구술서평에 관심이 있고, 재능이 있는 학생이라 하더라도 대학에서 그것을 전공할 기회는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개인적으로 개척해나가야 한다.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책의 선정부터 원고작성, 발음연습, 카메라테스트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 학습을 통해 구술서평자의 수요는 능력 있는 인재의 양성, 즉 자질 있는 구술서평자의 공급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문제임을 인식하게 되었다.

## V. 결 언

구술서평의 성격과 학습사례에 관한 논의 및 분석 사항을 요약적으로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구술서평은 도서관이나 학교, 문화센터와 같이 한정된 공간에서 독서회 회원이나 청중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거나, 라디오 및 TV 방송매체의 독서관련프로그램을 통해 일반인을 대상으로 이루어진다.

둘째, 구술서평은 기사서평에 비해 독자의 선택권이 보장되지 않으며, 공간적 시간적으로 한계가 있고, 비평하는 책의 범위는 대중의 흥미를 끌만한 것들로 제한되어 있다.

셋째, 구술서평을 통해 전달할 내용을 사전에 체크하고, 발표할 때 참고하기 위해서 원고 및 요지는 주어진 시간에 맞게 분량을 정확히 하고,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편집해야 한다.

넷째, 서평자의 언어적 표현 및 전달은 자연스럽게 자신감이 있어야 하며, 정확하고 차분해야 한다.

다섯째, 방송매체를 통한 구술서평은 방송언어가 지니는 일반적 조건, 표준어, 구두어, 쉬운 말, 순화된 말, 정확한 말 등에 부합하고, 문제가 되는 언어표현을 배제해야 한다.

여섯째, 서평자의 언어적 표현을 보완하고 강조하는 표정, 시선, 자세, 몸짓, 의상 등 비언어적 표현 또한 시간과 장소, 서평하는 책의 성격에 맞게 고려되어야 한다.

일곱째, 구술비평을 위한 학습은 강사 및 기자재의 확보에서 어려움이 있다. 문헌정보학 전공자를 대상으로 한 학습에서 예비서평자 집단은 발표연습의 부족으로 세련된 것은 아니지만 유능한 구술서평자로 성장할 충분한 잠재력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만하다.

독서관장을 위해서는 방송매체의 독서프로그램에서 뿐만 아니라 도서관, 학교에서 사서, 사서교사들이 구술서평 활동을 활발히 전개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은 전문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며, 전문가만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구술서평은 문헌정보학 전공자가 수행해야 할 일 가운데 하나이다. 학계에서는 그들이 경험을 통해 성장하기를 기대하기보다 제반 여건이 부족한 가운데에서도 커리큘럼을 개발하여 다양한 학습의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 참 고 문 헌

- 김상준. 방송언어연구.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1997.
- 김상호. 문헌비평론. 대구 : 태일사, 2003.
- 박갑수. 한국방송언어론. 서울 : 집문당, 1996.
- 임태섭. “방송언어의 사회적 의미와 영향.” 방송프로그램언어분석연구, 방송위원회 정책연구, 2001-4, pp.37-80.
- 정현욱, 강혜영. “남녀 대학생의 독서매체활용에 관한 계량적 연구.” 서지학연구, 29집(2004. 12), pp.165-188.
- 한국방송공사 방송심의실. 방송금지용어사례집. 서울 : 한국방송공사, 1981.
- Haines, Helen E.. *Living with Books*. 2nd ed. New York : Columbia University Press, 1950.
- Oppenheimer, Evelyn. *Oral Book Reviewing to Stimulate Reading*. Metuchen : Scarecrow Press, 1980.
- 이선미 스피치랩. <<http://www.speechlab.co.kr>> [인용 2004. 7. 14.], [인용 2004. 10. 11.]